

등록일
Mc.a.6

세계무역과 여성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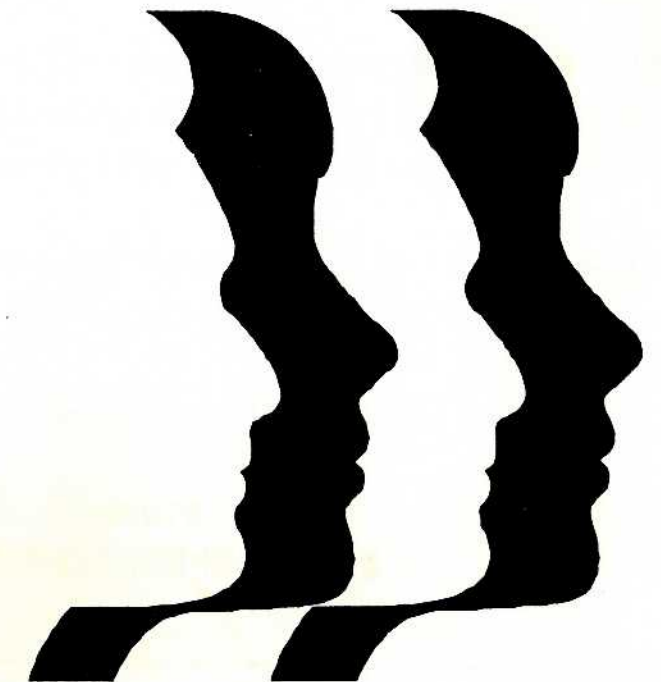
발행일 : 1996년 7월
제작 : Women Working Worldwide
번역 발간 :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인쇄 : 동방기획 (277-0365)



WORLD TRADE IS A WOMEN'S ISSUE

Promoting the rights of women worker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Women Working Worldwide
Briefing Paper**



인 사 말

전지구적 상황에서 국제경제·무역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바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각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이라는 이중 노동속에서 끊임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정책에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이러한 여성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4월, 세계경제와 무역정책의 결정과 논의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제외되어 왔고, 이제 여성들 스스로가 세계무역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현실을 분석하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Women Working Worldwide에서는 "세계무역은 여성의 이슈다"(WORLD TRADE IS A WOMEN'S ISSUE)라는 제목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에 Women Working Worldwide와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이 회의의 취지에 공감하며, 회의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세계무역정책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기구들이 한국경제, 무역관계, 신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서와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서들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아이의 엄마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시간을 쪼개 번역작업을 해주신 한여노협의 귀한 자원봉사자인 김효미님, 김홍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작업과 원고 전체를 감수해주신 참여연대 이대훈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을 갖고 계신 이분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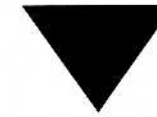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제 무역정책이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노동운동, 여성운동이 보다 다양한 실천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번역작업에 도움을 준 Women Working Worldwide에게도 감사와 연대를 보냅니다.

1996년 7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

- 남북, 또 남쪽 북쪽이라는 말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가리키는 시사적인 말이다. 엄밀하지는 않다.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구 북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예외다.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중진국 또는 상층 개도국이 남쪽인지 북쪽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은 말뜻 대로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섞여서 쓰인다.
- 민간단체란 인권단체, 노동단체, 사회운동단체, 환경단체 등을 가리킨다. 단 노동조합은 보통 민간단체와 구분해서 그냥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 ILO는 국제노동기구라는 뜻인데,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노사정 3자 대표가 참석해서 노동기준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조직이다. 2백개 이상의 국제노동조약(ILO조약)을 각국 정부의 서명으로 채택한다. 강제로 조약을 이행하게 하는 집행력은 없다.
- 종업원평의회(work council)는 노동조합과 다르다. 보통 산별노조가 있는 나라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종업원평의회가 공장별로 기업별로 또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차원에서 조직된다. 노조는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지만 종업원평의회는 그 기업의 모든 종업원의 대의기구이다. 여기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본 지침으로 해서 공장별 기업별 세부협상과 경영참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산별노조의 단체협상이 불가능하므로 기업별 노조가 두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꼴이다.(참고로 독일에 진출한 삼성은 이 종업원평의회를 무산시키려다가 형사기소되는 망신을 당했다.)



| | |
|--|-----------|
| 머릿말 | 8 |
| 1. 최근의 세계무역 상황 - 최근 맺어진 무역협정의 중요성 | 10 |
| 기본흐름 | |
| 무역협정: | |
| 세계협정 | |
| 지역협정 | |
|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 |
| 2. 무역자유화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 18 |
| - 더 많이 일하고 ... 그러나 어떤 대가로? | |
| 왜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가? | |
| 무역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
| 노동형태의 변화 | |
| 고용조건의 변화 | |
| 3. 노동기준이 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가? | 25 |
|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
| 노동기준에 대한 위협 | |
| 사회조항: | |
| 지금까지 사회조항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 |
| 각 정당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
|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 |
| 왜 우리에게 여성의 관점이 필요한가? | |
| 4.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 34 |
| - 기업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 | |
| 국가나? 기업이나? | |
| 국제 노동조합조직의 전략들 | |
| 윤리강령 | |
| 공정무역네트워크 | |
| 5.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 41 |
|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 | |

머릿말

누구를 위한 글인가?

이 글은 무역자유화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무엇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이 글은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단체나 개인이 무역자유화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 특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모든 여성들에게 의미를 갖는 문제들이다.

왜 세계무역을 논해야 하는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같은 새로운 지역 무역협정과 새로운 세계무역협정의 등장은, 세계시장경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최근의 무역협정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후퇴하고 다국적 기업의 힘은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일부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왜 여성의 관심사인가?

최근의 무역협정의 여파에는 임금노동자이건 아니건간에 여성에게 던져지는 특별한 면이 있다. 노동자들을 저임금, 유연고용, 일회성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곧 여성노동자들을 선호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법칙은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책임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에는 어떤 여파가 오는가?

무역자유화 상황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긴급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최저 노동기준을 시장 접근기회와 연계시키는 사회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이다. 또 다른 논의로는 기업윤리강령의 제정과 공정무역 네트워크 형성 전략에 관한 것이 있다.

여성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조항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토론은 대부분 정치권의 지도자들이나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그러나 실제 새로운 상황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들이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의 경험이 다르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공동체와 가족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인식하는 노동자의 권리 개념도 다르다. 여성노동자로서 제기되는 요구가 타당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조항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의 입장은 어떻게 대변되고 전달될 수 있는가?

국제무역협정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성단체나 그룹들간의 연계망을 이용해서 노동기준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또 여성의 입장을 내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역정책은 난해한 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또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실제 협정 이행에서 나타나는 여파가 노동자들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마다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사회조항이 노동 기준을 지키는데 유효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는 각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상황에 특별히 관심을 집중해서 무역자유화가 이들에게 어떤 여파를 주는 것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글쓴이 안젤라 헤일 Angela Hale

편집자 알라나 데이브 Alana Dave

레이아웃 안 그린할 Anne Greenhalgh

1

최근의 세계무역 상황

— 최근 맺어진 무역협정의 중요성

기본 흐름

세계무역의 확대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로 무역을 많이 하면서 점점 하나의 시장 즉 "세계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되고 있다. 1978년에는 오직 세계 인구의 35%만이 세계시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세계인구의 90%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나라간의 무역을 모두 합친 것 즉 세계무역량이 증가함을 뜻한다. 1950년 이후로 세계무역량은 12배 늘었다.(세계 생산량 증대의 2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무역은 선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선진국간의 무역 즉 남-북 무역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남북무역의 변화내용

대부분의 남북무역은 가공식료품과 원자재의 교역이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교역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지구 남북의 나라들, 즉 비선진국과 선진국들은 각각 서로 특화된 공

산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지난 20년 동안 남쪽 나라들(후진국, 개도국)은 공산품 수출을 5%에서 25%로 증가시켰다. 이중 3/4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담당했다.

다국적기업의 지배력 증대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지배가 증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계무역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무역의 70%는 이들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350개의 기업이 세계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 유동성의 증대

세계경제가 통합될수록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도 증가한다. 심지어 국제적인 금융투자는 세계무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금융기관의 역할 증대

국제금융기관 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압력으로 남쪽의 많은 나라들은 산업구조 조정정책(SAPs)을 채택하도록 강

요되어 왔다.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남쪽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를 다국적기업에 개방하고 또한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에도 개방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나라의 정부는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힘을 점점 잃게 된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나?

새로운 통신수단의 대두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국제적 생산활동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있기에 가능하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다국적기업들은 생산공정을 나누어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면 서로 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단지 컴퓨터와 전화를 사용해서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거래를 하기도 한다.

경제자유화

새로운 통신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자유화조치가 없으면 현재 수준과 같은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 자유화조치란 자본, 상품, 서비스의 흐름을 저해하여 왔던 많은 정부의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으로, 현재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자유화조치를 시행했거나 하고 있다. 또 이는 남쪽 나라들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무역협정

국제무역협정은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무역협정은 그 당시의 생산증대와 변화를 반영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경제개발을 위한 윤곽을 설정한다.

남북 나라들은 서로 정치적 힘이 불평등한데 세계무역은 항상 이러한 정치적 힘의 줄다리기 위에서 형성된다. 남쪽 나라들의 저개발 혹은 미개발 상황은 선진국들이 차별적인 무역협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더욱 심화된다. 대부분의 남쪽 국가들은 농산물, 천연자원 즉 목재, 고무, 동, 알루미늄, 커피, 차등과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격하락과 교역기간의 변화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차상품의 가격하락은 이 국가들에게 최악의 빈곤을 초래했다. 이들은 다른 상품의 수출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공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무역협정 때문이다.

남쪽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역협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그들의 수출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무역협정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은 주로 선진국에서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남쪽 대부분 나라들이 겪

고 있는 빈곤문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무역은, 각국에서 그 나라의 자원과 투자를 동원하여 그 나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을 위한 생산은 국제시장의 판로가 쉽게 열리지 않는 한 비현실적인 정책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문제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이러한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진정 혜택을 볼 것인가이다.

국제무역협정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가트는 정부대표자들의 국제기구이다. 1947년 이후로 가트는 국제무역협정의 중요한 회의체가 되어왔다. 가트는 세계무역의 규칙을 세웠으며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무역자유화는 한 나라의 상품이 다른 나라의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쉽게 한다. 가트 회원국은 수입쿼터제와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쿼터 - 수입할 수 있는 상품 양에 대한 제한

처음에 남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트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쪽의 선진산업과 경쟁할 수 없는,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무역자유화는 북쪽

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한다. 그래서 가트는 "부자들의 클럽"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확립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제무역에 점점 개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출산업, 외국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트의 마지막 협정은 1993년 우루과이에서 완성됐다(가트 4차 라운드).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정사항들은 예전에 가트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한다. 또한 여기서 세계무역협정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국제무역기구(WTO)가 그것이다. 이제 WTO시대라고 얘기하듯이 WTO는 가트를 대체한다.

국제무역기구(WTO)

WTO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트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

- 이전에 가트 체제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분야를 다루고 있다.

- 이 새로운 분야의 협정 사항을 다루기 위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 WTO는 제네바에 상설본부를 두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국제무역기구(WTO)가 감독하는 새로운 무역분야

- 서비스 교역

남쪽의 70개 이상의 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 산업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외국의 은행, 보험, 운송, 통신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서비스분야는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따라 민영화되므로, 이와 연관되어 외국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영화에 따라 이전에는 공기업이었던 분야들이 외국 투자에 개방된다.

- 투자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던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있다. 이전에는 외국기업들이 해외로 송출할 수 있는 자금 액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또한 제조업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은 현지의 자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각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그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규제완화는 다국적기업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 특허와 저작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대부분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와 저작권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통제가 도입된다. 특허상표의 소유자는 특허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실제로 이것은 기술이전의 축소를 낳으며, 광범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이 다른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

GATT/WTO하에서의 시장진출의 원칙

새로운 무역의 법칙이란 국제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쿼터, 관세 그리고 다른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국제시장에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어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이전의 가트협정에도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상의 규정이 있었지만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에는 장애가 많았다. 특히 북쪽 나라들은 남쪽 나라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 경쟁에 대항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MFA(의류·섬유산업에 대한 무역협정)

의류·섬유산업은 무역규제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산업이다. 규제는 의류·섬유산업에 대한 무역협정 즉 MFA를 통해 이뤄졌다. MFA는 1974년에 남쪽으로부터의 수출증대에 대해 북쪽 나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

가트 4차 라운드에서 MFA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협정(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ies)으로 바뀌었다. 새 협정에 따라 MFA에 따른 규제는 앞으로 10년을 기간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남쪽 의류 수출 국가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쟁할 수 없는 나라들의 산업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생산의 양태가 쿼타제 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생산공정 이동이 예상된다.

북쪽 나라들은 MFA규제를 폐지하는데 소극적이다. 그들은 "안전 조치"를 허용하는 가트협정을 명분으로 의도를 숨길 수도 있다. 가트 규정에는, 북쪽 나라들의 산업이 위협받거나 특정한 나라가 너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질 때, 8년 동안 추가로 무역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안전 조치"가 있다.

지역 무역협정

지역별로는 무역자유화가 세계적 수준보다 더 진전되어 있다. 지역협정에 의해 구성된 주요 무역 블록은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EU)

유럽의 역내 투자와 무역은 유럽연합의 성립 이후에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자유무역과 지역 공동기구의 설치 및 활동을 포함하는 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 북미주 자유무역협정(NAFTA)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상태이다. 이 협정은 곧 칠레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후 이미 상당한 개방경제를 취하고 있는 중남미의 여러 국가를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

이것은 산업 협력을 위해 결성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 지대이다.

-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럼)

APEC은 NAFTA와 아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확대된 자유무역권을 제안하고 있다.

카리브,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 있는 나라들도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맺었다.

가트 협정과 이러한 지역협정의 관계는 명백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가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가 지역 블록으로 점점 나누어짐에 따라 지역주의가 국제무역협정을 훼손시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많은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은 무역자유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역장벽이나 규제조치는 진정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필경 변화된 국제무역의 조건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일부 국가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NAFTA의 경우에서처럼 국제무역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에서 국제적인 힘의 정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새로운 세계협정으로 2/3의 이익이 북쪽에 산업화된 나라들에게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평가된다.

남쪽에 있는 몇몇의 국가들도 역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수출에 제약이 되었던 의류 섬유산업에 대한 무역협정이 마침내 철폐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의 수출 소득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소득의 증가는 아시아(특히 중국)와 남미의 몇몇 나라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득은 서비스 분야 보다는 제조업에서 얻어진다.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항공, 보험, 은행 등에 대한 기존의 보호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많은 나라들이 손실을 볼 것이다.

또 새로운 무역체제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새로운 무역의 기회를 이용하기에는 자본과 기술이 너무 부족한 나라들이 많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농산물과 광물자원의 수출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일차상품은 새 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전에 특별한 협정 - 예를 들면 아프리카, 카리브와 태평양에 위치한 나라들을 위한 로움협정 - 에 의해 혜택을 받던 나라들은 관세나 다른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 원래 이러한 협정은 가난한 나라들이 해외시장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확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사라지고 무차별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이들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나라들은 또한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상당수가 주변화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카리비아해지역 나라들은 북미주 자유무역협정(NAFTA)로부터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나라들은 새로운 무역체제를 활용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새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그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했던 정부들은 향후 6년 동안 이 보조금의 20%를 삭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식료품 수입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난한 나라들이 국제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법제개편과 행정절차 변경에도 역시 비용이 들 것이다.

새로운 무역협정은 기존의 불평등한 경제적 힘의 관계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것이다. 혜택을 받는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는 점점 침체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무역자유화로부터 혜택을 보는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유엔의 1995년도 '인간발전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장과 전제적인 인간발전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감소시켰을지도 모르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빈부간 소득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의 하나다. 그러한 사회에서 수출증대는 단지 엘리트층에게 혜택을 줄 뿐이다.

무역자유화는 비공식부문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리하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체제가 가져오는 그 어떤 기회도 활용할 수 없다. 심지어 새로운 고

용기회가 생겨 이득을 보는 사람들조차 소득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함께, 건강, 시간, 가족, 공동체, 여가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손실을 동시에 경험할 것이다.

초국적기업 - 진정한 승리자

초국적기업은 힘과 영향력 면에서 점점 강해져왔다. 그리고 현재 세계경제를 지배한다. 그들은 민간분야에서 세계의 부의 1/3을 지배하고 있다. 또 이들의 지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초국적기업들은 특허나 하청 또는 합작계약과 같은 복잡한 체제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업활동을 추구하려는 초국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초국적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대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초국적기업은 당장 이윤이 보장되는 나라나 산업에 대해 투자하려고 한다. 대체로 세계경제의 자유화 흐름 뒤에 숨어있는 세력은 이들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맺어진 새로운 협정은 초국적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나 쿼터 같은 무역규제 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분야에 미쳤던 각국의 규제 또한 초국적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초

국적기업은 현지의 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현지 기업은 초국적 기업의 상품(T-셔츠의 가짜 상표, 해적 카세트 등)을 복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조치가 폐지되면서 각국의 기업은 세계적 기업의 지배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힘의 균형이 바뀐다.

한 나라의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일국 정부의 능력은 국제통화기금이 부과하는 의무사항과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은 일국 정부의 경제조정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그 원인은 두가지이다.

- 초국적 기업은 경제활동상의 이동의 자유를 증대시킴으로서 경제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 그러나 각국은 WTO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율성의 범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새 무역체제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정부와 기업의 일부 사람들은 국제적인 협력과 국가의 번영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무역체제를 환영할 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통제력을 가장 많이 잃는 층은 평범한 서민들이다. 자급자족적인 경제활동은 서민층에게는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된다. 또 중요한 결정이 세계적 수준에서 내려지면서 권력자와 서민들의 거리도 더 멀어진다. 노동자의 상황은 점점 그

나라의 사용자나 정부 보다도 초국적기업과 국제기구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이 나라별로 대응해서는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노동자 조직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역자유화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 무역협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역과 우리의 작업환경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무역관계가 변화할 때, 각국은 다른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는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산업변동에 따른 실직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한편 소규모 생산자들은 같은 상품의 수입 상황에 따라 판매상황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른 생산자들은 값싼 수입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다른 생산자들은 값싼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에 대한 영향은 항상 똑같지는 않다. 지역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은 남성과 다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무역환경의 변화는 경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공식부문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

계는 차이가 난다.

왜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가?

1. 여성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은 무보수이며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대부분 무보수의 가사노동과 육아나 부모봉양 등 사람들보는 일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당연한” 책임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돌볼 책임을 갖는다.

2. 여성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많은 부분 역시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쪽 나라들의 경우, 보수를 받고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의 일은 정규직이 아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이는 자본금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뜻이다. 이들의 하루 일과

는 보통 가사노동과 병행해서 상품을 팔거나, 집에서 일하거나, 혹은 일감을 맡아와 집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일은 거의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분야의 노동은 대부분 공식적인 노동조합에서도 무시한다.

여성이 비정규직에 많이 참여하는 이유의 하나는 공식부문의 많은 일자리가 여성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일자리로부터 여성이 배제되고, 교육과 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가사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할 때 얼마나 큰 압박을 이기고 직업전선에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보통 비정규직을 통한 소득은 가게 수입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여성들은 특정한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는 공식과 비공식 양 부문에서 대단히 성차별적이다. 어떤 일은 남성의 일이고, 다른 일은 여성의 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남성의 일은 기계와 기술에 관련되어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서비스활동에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 조선 노동자는 남성이고, 섬유노동자와 청소부는 여성이다.

4.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동일직종에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 여성은 단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여성을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즉 가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은 직업의 안정성도 낮고 승진의 기회도 적다. 심지어 여성이 대부분인 산업에서도 고위직은 남성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자유화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무역자유화는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역자유화의 이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역자유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와 사회 여건이 나빠지게 되면 많은 여성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여성에게 가능한 직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여성에게 실제 이

익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확대된 고용상황이 여성의 건강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경제활동상의 남녀간 불평등 관계가 사실상 어떻게 영향받는가? 또한 한쪽의 여성 고용증대가 다른 여성들의 실직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직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자유화의 여파는 이주 들쭉날쭉하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잃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에서 자유화는 투자 확대를 수반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혜택을 본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나라들에서조차도 경제성장은 여성노동자들의 상당한 희생을 대가로 치루며 진행되었으며, 지금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아래와 같은 상황과 연관된다.

1. 노동형태의 변화 - 무역자유화로 득을 보는 많은 산업은 대부분 여성노동력을 중심으로 한다.
2. 고용조건의 변화 - 자유화조치는 임시직이나 파견직노동자 등 "유연" 고용전략을 쓰는데

여기에 여성노동력이 더 편리하다.

가. 노동 형태의 변화

더 많은 일자리가 여성에게 주어지는가?

수출지향의 제조업의 증가

무역자유화는 수출생산을 증대시키고, 국내 소비생산은 감소시킨다. 이러한 증가는 남쪽 국가들의 의류, 신발, 가공식품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세계시장형 공장들"이 대체로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모든 지역이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무역자유화가 "여성 산업"의 감소를 가져온다. 자유화는 쿼타제의 점진적 폐지를 뜻한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자유시장에서는 생산가를 낮추는 쪽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이제 각 국은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갖는 나라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의 이러한 충격은 이미 동아시아 나라에게 가해졌으며, 그로 인해 이 지역의 경공업 산업은 고도 기술집약산업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수출생산에서 여성고용이 증가하는 지역은 방글

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등이며, 반면에 한국과 홍콩의 여성들은 일자리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서비스 산업의 증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증가는 여성고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생산이나 무역과 연관된 상업 서비스분야에서 일어난다. 많은 전형적인 "여성형" 일자리들은 남쪽 국가들에게서 만들어 지고 있다. 정보처리, 통신, 금융 서비스는 북쪽 국가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비스직이 증가하면서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안 국가들의 여성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안 나라에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70%는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일부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좋은 보수를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다른 여성들에게는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게 된다거나 예상치 않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으로 정보처리와 같은 신종 직업과 청소나 가사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업등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증가

여성의 고용기회의 불평등한 성장은 여성의 이동을 증대시킨다.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농촌에서는 남성들이 점점 더 실업상태로 되고, 여성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산업화된 지역으로 이동한다.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특히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여성의 이동을 유발시킨다. 가장 많은 노동력 이동은 아시아 내부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중동국가들로,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이동한다. 필리핀의 여성 이주노동자의 수는 남성보다 12배나 높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호텔 청소부, 간호사, 가게종사원, 유흥업 등에 종사한다. 이주 노동자중에서도 여성은 착취와 학대에 특히 시달린다. 그들의 수입은 가족의 경제적 생존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희생할 때가 많다.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감소

관세 인하로 정부는 수입이 줄어든다. 이 수입 감소는 공공지출의 삭감을 가져온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공부문의 고용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 부문의 변화 또는 확대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국내시장은 외국 상품과 국제경쟁을 하게 된다. 값싼 수입품들은 "가내수공업자"와 많은 여성 생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이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9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한다. 예를 들면, 수직(手織)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여성들은 비공식 경제에서 쫓겨나고 있다. 동시에 수출생산의 증가는 다른 영역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의 증가를 가져온다. 현재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의 대부분은 "비공식"에 속한다. 이 비공식 부문의 노동력이 공식부문의 노동력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 고용조건

무역자유화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임시노동에 대한 수요

임시노동은 무역자유화와 관계가 있다. 임시노동의 증대 또는 유연화전략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더 자유롭게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임시 계약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쓰려고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종류의 작업을 부과한다. 왜 임시노동은 무역자유화와 관계가 있는가?

- 새로운 무역협정은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면서 더 쉽게 생산을 조직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역장애와 규제의 철폐는 국제적 경쟁의 증가를 의미한다. 경쟁의 증대로 인해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새로 찾게 된다. 기업은 노동비용과 생산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바로 임시노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생산조직의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더 많은 작업이 하청업자들에게 주어진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적절한 권리나 협의없이 임시적으로 고용된다.

임시노동력으로서의 여성

임시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성들은 항상 임시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인식된다. 더 쉽게 해고되고, 필요할 때 다시 고용되기도 한다. 항상 적절한 고용계약이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채 임시직, 시간제(파트타임) 등 취약한 노동계약을 맺게 된다. 특히 젊고 경험이 없는 여성은 임금도 적게 받는다.

고용조건에 대한 기본추세

국제 경쟁에 대한 경제개방이 전체 산업의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성의 증가

무역자유화가 가져오는 생산형태의 변화에는 더 많은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경향이 포함된다. 새로운 무역 협정은 기업이 그 활동을 국가를 넘어 이동하거나, 단번에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한다.

전반적인 고용의 임시성이 발생한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시장도 불확실하다. 기업은 자신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노동력을 원하지 않는다. 핵심 노동력으로서 남성 노동력을 배치하고, 여성은 임시노동자로서 주변적 고용으로 하려는 기업이 점점 많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노동자를 고용한다.

노동강도의 증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 투입 없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라인에서 여성노동자의 수를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늘린다. 노동자

들은 더 많은 긴장과 더 힘든 노동을 하게 된다. 납품업체들이 무리한 납품기한을 맞추어야 할 때, 노동강도는 증가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장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한다.

건강과 산업안전의 위험 증가

여성노동자의 취업기회가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 증가한다. 섬유 의류 전자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문제는 현재 잘 조사되어 있다. 깨끗하게 보이는 서비스 산업의 새 직종들도 역시 위험할 수 있다. 8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정보처리자들은 서로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스트레스반복질환과 같은 병이 발생한다.

무역자유화를 이유로 기업은 수출산업에서 건강과 산업안전에 관련된 비용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건강과 산업안전 조치 또는 환경규제조치가 강하면, 기업은 그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고 한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나프타협정 이후 많은 미국인 소유의 기업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멕시코 국경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가족부양 책임에 대한 무시

무역자유화와 관계된 자유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동자의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노동자들은 수요가 있을 때 단지 일을 하도록 준비되면 그만이다.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부양에 대한 보장책이 추가로 필요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로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지출을 줄이고 있고, 기업은 가족생활상의 요구를 점점 더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은 이중의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한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조직화의 어려움 증대

노동자들은 변화하는 노동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는 노동자의 조직화를 힘들게 한다. 자유화의 결과,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들은 더 줄어들다. 이것을 탈규제화라 부른다. 탈규제는 역시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즉 자유화정책은 노동조합의 힘과 권리를 보호해준 법률의 약화를 아울러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유연 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된다.

유연 고용정책 그 자체가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든다. 노동조합이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는 임시직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요약

무역자유화는 여성들의 취업을 증가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제 발전과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영역에서 여성들은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본 여성들에게도 반드시 남녀 평등한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취업은 많은 희생을 수반한다. 여성들은 더 많은 빈곤과 고용불안정에 직면한다. 여성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된다. 여성들의 노동조건은 불안정하며, 불규칙한 시간, 높은 수준의 노동강도,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승진의 기회도 없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평등을 위한 보장도 찾기 힘들다.

여성들이 계속해서 수출산업의 저임금직종에 종사하는 한 그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여성들이 획득하는 경제적 사회적 수준의 향상은 그 미래가 매우 취약하다. 무역자유화에 수반하는 고용조건 변화경향을 보면 일시적인 고용안정은 실질적인 안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동기준이 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가?

노동기준의 악화

무역자유화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노동기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흔하다. 새로운 고용은 더 착취적이며 현지의 경제적 요구와 상관없다. 자유 무역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불안정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경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닐 자유를 누리는 한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노동기준의 보장을 위한 협상에서 나라별로는 효과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과 노동기준

노동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에게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여성의 임금 수준과 노동

기준은 남성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 때문에 여성고용은 무역자유화와 함께 증가한다. 노동기준의 악화가 미치는 여파는 여성들에게 더 심각하다는 점도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노동기준의 후퇴는 가족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에게는 일하는 어머니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새 무역협정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가?

무역자유화 반대

노동자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은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남쪽 국가들의 경제정책 개혁은 국제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나라들의 대다수는 현재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을 거

부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과거 인도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자급자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정책을 상당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식량폭동과 같이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대중적 저항의 흐름도 있어 왔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저항도 시도된 바 있다. 인도에서는 “세계은행과 파괴적인 국제원조 반대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연합체가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이 연합의 목표는 사회정의와 경제평등의 관점에 선 국제 무역과 경제자립 정신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트체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대중운동은 무역자유화를 취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지배를 확대 강화시키는 나프타협정에 반대하는 강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 연대기구는 미국의 노동단체들과 연대해서 공동전선을 폈다. 1994년의 차파스봉기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자유화의 악영향에 항의하는 봉기였다.

이러한 저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개방을 당장 중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저항운동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데 내용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무역의 규제

노동기준을 악화시키지 않고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무역협정 내에 설정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가능한지 또 어떤 노동기준을 조건으로 설정해야 할 지에 대해 국제적인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대중단체들은 그러한 전략이 일단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그러한 규제가 선진국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을 염려한다. 무역상의 노동기준 적용이 저임금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기준을 보장하려는 다른 전략에 대한 관심을 흐릴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사회조항(Social Clauses)

사회조항이란 무엇인가?

사회조항의 목표는 최소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 수출업자들에게 벌칙을 부가함으로써 노동기준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조항이 무역협정 속에서 채택되면 노동기준이 기본수준 이하인 국가들로부터는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최소기준은 보통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가지 핵심 조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 결사의 자유
- 단체교섭의 권리
-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지금까지 사회조항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쌍무 협약(두 나라간의 무역협정)

노동기준의 보장과 관련된 조항은 10여년 전부터 쌍무무역협정의 일부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상대국 정부차원에서 노동자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무역협정의 조건으로 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984년에 시작된 GSP프로그램 즉 일반특혜제도가 그 예다. 이 정책의 대상은 남쪽 국가들이다. 이것은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이 “노동자 권리의 존중”을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 정책으로 인해 진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허가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1995년 일반특혜제도의 구상에 의거해, 유럽연합 각국 정부는 핵심적인 ILO조약을 준수하는 수출국에 대해 추가 특혜조치를 제공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것은 1998년부터 유효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때가 되면 특혜적용의 범위를 줄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현재 유럽연합 관세가 붙는 개도국의 수출상품중에서 특혜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1/4에도 못미친다.

지역무역협정

지역차원에서 노동기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나프타협약에 관한 것이다. 나프타협약에는 현재 노동문제에 관한 부대협약이 첨부되어 있다. 이 부대협약으로 인해, 수출국에서 아동 노동, 최저 임금, 산업보건안전에 관한 노동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나프타협약의 혜택은 중단된다.(아울러 환경과 분쟁조정에 관련된 다른 부대협약도 있다.)

이러한 협약의 이행과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체재조치의 강도가 약한 것도 문제다.

다자간 협약 - GATT와 WTO

사회조항 문제는 가트의 1978~9년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심각하게 토론되지는 않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1993년 회의에서 미국 대표부는 협상 의제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 유럽의회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럽연합 무역 대표부는 가트에서 이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

단 프랑스만이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각국 정부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 금지조건에 대해서 뿐이었다. 그래서 논쟁은 새로 설립된 WTO로 넘어 갔다. 소임이 종료된 가트 사무총장은 무역협정에 사회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자유주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조항을 의제에서 빼버렸다.

WTO에 참여하는 정부 중에 상당수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무역조건 설정의 문제를 무역에 관한 "새로운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노동기준을 포함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세력은 생각보다 적다. 사무총장 말에 의하면 이 문제는 너무 의견이 분분하여 "남북간 분열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는 최근의 연설에서 "합의의 부재로 WTO 의사일정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 무역협정에 사회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이익인가?

사회조항의 포함에 관한 논쟁

다양한 집단이 각기 채택한 입장과 그 입장의 배경이 되는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 기업주들은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방해가

될만한 규칙에는 분명히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조항의 포함을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해왔다.

- 북쪽 국가들의 노동조합은 사회조항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일반특혜제도안에 노동기준을 다시 도입한 것은 유럽 노동조합운동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의 노동운동의 압력은 나프타협약의 부대협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쪽 국가들의 노동조합 대표들은 대부분 무역자유화가 노동기준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기준은 사회조항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회조항을 지지하게 된 것은, 남쪽 국가들의 낮은 노동기준 때문에 무역자유화가 북쪽 국가들에서의 실적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국제자유노련(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 ICFTU)은 WTO안에서 사회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주도 세력의 하나다. 국제자유노련의 입장은 부문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조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북쪽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은 많은 논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 남쪽의 노동조합은 그동안 북쪽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회조항 논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또 나라마다 입장차이가 있다. 일부 규모있는 노

동조합에서는 무역규제와 사회조항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노조도 있다. 브라질의 노동조합연맹(UWF)은 사회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한다.

인도의 노조운동에서는 사회조항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인도 노동조합들은 사회조항을 북쪽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의 지배적 입장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의 기층단체들 중에서도 국제적인 무역규제를 좋아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다.

- 남쪽 국가의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조항에 반대한다.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그룹은 말레이시아 수상이 이끄는 방콕 그룹 즉 아시아 국가 그룹으로부터의 반대다. 이들이겐 잘 훈련된 저임금 노동력이 가장 커다란 재산이다. 이들은 남쪽 국가에 노동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화제국주의의 한 형태이며 또 북쪽의 보호무역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정부들은 비록 각국의 자주노조(독립노조)들이 노동권의 인정을 위해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온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경제력도 높아지면서 사회조항을 지지하는 쪽으로 공식입장이 변화하는 것은 흥미롭다.

- 북쪽국가의 정부들은 사회조항에 관한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그들의 입장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정부간의 많은 논쟁을 이끌어왔던 것은 미국 정부다. 미국은 노동기준의 통제에 찬성한다. 이는 미국내에서 강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도덕적 논의에 쉽게 영향을 받는 대중의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 민간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북쪽의 많은 인권단체와 사회개발 단체들은 무역규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사회조항이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다. 한편 남쪽의 기층단체들로부터는 사회조항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은 노동자 권리와 무역협정을 연계시키는데 반대한다. 그 근거는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없는 시장제도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은행의 1995년 세계개발보고서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무역과 직접 연관된 문제로 제한해서, 무역을 다른 이슈와 연계하려는 보호무역주의자의 이해를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논쟁을 이해하는 길

사회조항에 관한 논쟁에는 두개의 쟁점이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의 대립 - 사용자들은 반대하지만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북쪽과 남쪽 입장의 대립 - 북쪽 국가들은 찬성하고 남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실제 논쟁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위와 같은 대립 구도에서는 이상한 동맹이 형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도 노동조합들이 세계은행과 함께 연합하여 유럽노동조합주의자들과 한국 정부에 반대한다.

사회조항 논쟁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

대부분의 노동단체와 민간단체는 무역협정에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한다. 문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신)보호주의?

의견 불일치를 낳는 핵심 사안중의 하나는 사회조항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이다. 기존의 보호무역주의는 WTO체제하에서 사라지고 있

다. 그러나 북쪽 국가들은 노동기준이 낮은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북쪽국가들은 경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기업이 남쪽국가로 이동하는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조항에 대한 지지가 북쪽 국가들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더 값싼 생산지를 찾아서 세계를 떠돌아 다닐 때, 남북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빈곤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데 사회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조합에게,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 협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조항에 적용되는 권리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또 다른 논쟁의 관심은 사회조항이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사회조항에 임금수준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세계의 다양한 경제형태에 모두 적용되는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강제 노동과 단결권에 관련된 세가지의 핵심적인 ILO 조약이 사회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에도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이 수준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일부에서

는 차별, 최소연령, 건강과 안전, 노동시간에 관한 이슈를 다루지 않고서 노동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

누가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누가 보편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또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제재할 수 있는가? 집행가능성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다. 국제노동기준은 ILO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ILO는 정부에게 권고를 할 뿐이다. 정부가 국제기구 지침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보장제도는 없다.

무역협정안에 사회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어떤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항해서 무역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결정하고 언제 제재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제제조치를 집행할 것인가?

남쪽의 많은 단체들은 WTO가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WTO는 일국일표제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사회조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제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역 강대국들 뿐이다. 국제자유노련은 ILO가 노동기준의 준수여부를 판정하고 WTO가 제제조치를 담당하자는 제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남쪽의 작은 나라가 미국기업의 노동기준이 열악하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제제조치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적 제도가 강대국의 이익에 따

라 이용돼왔기 때문에 누가 사회조항을 적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회조항 자체를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도 사회조항의 감독과 이행이 더 욱 민주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사회조항의 도입에는 반대할 것이다.

사회조항은 노동기준을 향상시킬 것인가?

또 하나의 큰 의문은 사회조항이 있으면 실제로 노동기준이 향상될 것인가이다. 확실히 국제적인 제제조치의 도입은 새롭고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인도네시아의 자주적 노동운동 측은, 사회조항은 정부에게 노동운동탄압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조항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한다. 이들은 사회조항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기준을 갖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에 더 많은 장애가 생긴다고 본다.

사회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처럼 탄압이 그리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노동조건은 놀랄정도로 나쁘다. 인도와 같이 단결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도 기본적인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고 또 계속 침해될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기준 준수에 대한 독립된 감시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자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시활동도 불충분하고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조항은 수출부문에서만 적용된다. 많은 나라의 경우,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출 부문은 고용의 일부만 담당한다. 다른 산업 부문에서 노동기준 이하로 노동자를 대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사회조항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조항 논의에 여성의 시각은 존재하는가?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여성들은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알고 이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다양한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이 논쟁은 진행되고 있다.

- 나라별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
- 한 나라의 정부와 정부간 지역기구
- 세계은행, ILO, WTO와 같은 국제 기구들
- 원조단체와 민간단체들

일부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여성들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장에서 제대로 대표를 보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사회조항 논쟁에 여성노동자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회조항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의 상당수가 여성이다. 국제사회에서 현재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는 세계시장을 위해 의류, 신발, 장난감을 만드는 작업장의 노동조건이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사회조항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전혀 불확실하다. 그러나 사회조항 논의에서 노동자 상황을 언급할 때 성에 대한 구별없이 취급된다. 아직은 이러한 논쟁에 여성적 관점은 없다.

왜 우리는 여성의 관점을 필요로 하는가?

1. 여성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세계 각지의 노동자들은 모두 권리침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여성노동자의 조건과 급여는 항상 남성들보다 나쁘다. 그래서 여성은 노동기준이 악화될 때 더 위협받는다. 보편적인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향상의 방법으로 여성에게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2. 여성의 권리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여성들이 노동기준이나 노동권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일부 논의 주제가 도외시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부양과 관계있는

논의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사회조항에 포함된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단결권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최소 조건이다. 그러나 최저노동시간이나 건강, 산업안전권 같이 작업장에서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이것은 모두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모성보호, 자녀양육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빠진 노동기준 논의는 여성에게 무의미하다.

3. 여성 노동의 대부분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가정이나 영세공장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 국제단체들이 이런 작업장의 노동기준을 감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도에서는 여성노동자의 90% 이상이 조합도 없고 감시도 할 수 없는 부문에서 일한다. 국제노동기준이 이들 작업장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장되기는 힘들다. 이런 사업장에서의 노동기준 보장은 지역차원에서 광범위한 협조와 많은 자원 동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기준은 가장 낮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립되어 있어, 착취당하기 쉬운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들은 대체로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여성들은 시간제

나 임시고용상태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표할 수단도 갖지 못한다. 어떠한 노동기준 보장제도든지 이러한 상태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가난한 여성들에게 미치는 의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노동기준 설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지만, 사회조항이 노동조건 개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사회조항은 충분하지 않다.

사회조항은 전세계의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하나의 가능한 전략으로서만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조항은 법률적 도구이다. 사회조항은 현지에서의 강력한 활동과 국제적인 캠페인 그리고 정보교류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기준을 만들고 무역협정에 삽입하는 일로 인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운동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4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국가나 기업이냐?

무역협정상의 사회조항은 적절한 노동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진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무역협정은 다국적 기업들의 힘을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이 세계에 거의 없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없다. 이들의 정치적인 힘은 경제적인 힘에 비례한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도 한 나라의 경제를 지배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이해에 묶여 개혁을 추진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다. 권위적인 정부들은 다국적기업에 값싼 노동력과 낮은 산업보건안전 비용을 허용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보통 국민의 복지와 무역 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부로 여긴다. 반면 기업은 소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은 더

좋은 노동기준과 임금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확실히 새로운 현대식 공장들은 전통적인 중소기업들보다 더 좋은 작업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과도한 노동강도와 산업보건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 다국적기업은 공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생산단위나 가내공업에서 진행되는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은 자기 공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하청공장의 노동기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책임을 진다면 사회조항을 통한 규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다국적기업에 압력을 가해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운동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라별 활동에 기반한 국제적인 연대가 포함된다. 노동조합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과 함께 기업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 노동조합조직의 전략들

알 권리와 협의할 권리

유럽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의 국제적 협력 모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1994년 유럽연합의 사회지침(European Directive)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사회지침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은 1996년 9월까지 유럽 종업원평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국 및 국제 노동조합 조직들은 노동자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의 하나로 이 평의회의 구성을 지지해 왔다.

유럽종업원평의회는 주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유럽 지역 수준의 정보와 의사결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국적 경영진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공장폐쇄, 공장이동, 기업의 경제환경 및 재정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사항에는 건강, 산업안전, 환경기준 등이 포함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유럽종업원평의회를 통해 광범위한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노동자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을 공개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다국적기업은 더 자유롭게 전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래서 다국적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산업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제도는 노동자들이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활동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법중의 하나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갖고 단체협상이나 다양한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기구에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대표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기업에서조차 평의회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 노동조합 중에는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 유럽 금속노조 연맹은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는 여성노동자 대표의 수를 그 기업에 고용된 여성의 수에 비례해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노조연맹들도 이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여성노동자 문제에 관한 회의를 조직하였다.

유럽의 종업원평의회는 유럽 기업들에만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럽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유럽의 종업원평의회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각국의 그 기업 노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유럽차원의 정보공개는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연대 전략을 세우고, 알

권리와 협의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단체협상

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은 이제 국제적인 경제환경을 바탕으로 일국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국적기업이 지배력을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협상이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단체협상이 시행되면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동등한 근로조건과 노동기준을 위해 협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기업은 남쪽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노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적인 단체협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목표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장기적인 전략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단체협상의 실현 이전이라도, 앞으로의 단체협상 구조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식료품노조(IUF)와 논의구조에 관한 단체협약

1995년 6월 국제식료품노조와 다국적기업 액코(Accor)는 노동조합권리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액코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호텔체인 및 조리업의 다국적기업이다. 액코는 전세계 132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라 각국의 액코 경영진은 국제기준에 의거해서 노동조합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 대표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프랑스계 식료품 다국적기업인 다논(Danone)사의 단체협약 이후에 나온 것이 액코의 단체협약이다. 다논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권리의외에도 다음 세가지의 준칙이 더 합의되었다. 이 준칙은 기술 훈련, 정보공개, 남녀평등에 관한 것이다.

준칙 합의는 개별 노동조합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 위한 최저 기준 및 선의의 노사활동의 기반이 된다. 또 이러한 다국적 준칙합의는 노동자 단체가 노동기준과 노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러한 준칙합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국의 노동조합이 강력한 조직력과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기업 윤리강령 (Company Codes of Conduct)

국제적 기업윤리강령

지난 수년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국적기업의 윤리강령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첫 제안이 유엔에서 만들어졌지만 12년동안의 협의 끝에, 즉 1992년에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국적기업 윤리강령의 초안이 1977년 ILO에서 작성된 바 있다. 여기에는 노조를 결성할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훈련, 산업안전, 평등대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이 이러한 기업활동 윤리규정을 준수할지 여부를 미리 판가름하기 위해서 각 국 정부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여기에 회답하지 않은 정부가 많았다. 회답을 보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그런 정부들조차 ILO의 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는 정부가 많았다. ILO는 특정기업을 언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갖지 못한다.

자율적인 윤리강령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소비자단체, 정치조직들로부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에 대해

항의가 계속되자, 기업은 자율적인 윤리규정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적 압력은 명목상으로만 합의된 국제기준보다 더 효과적인 수 있다. 기업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고, 기업의 악습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은 윤리강령을 기업에 대한 홍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경쟁기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보기도 한다.

자율적인 기업 윤리강령은 사회조항이 다루는 내용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산업보건안전, 노동시간, 동등한 기회와 관계된 이슈도 다룬다. 기업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윤리강령이 그 기업활동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와 하청업체, 구매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노동기준에 대한 기업의 이러한 규범에는 환경보호 조치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대체로 이런 규범을 채택한 기업은 그것을 스스로 적용하고 그 준수여부를 스스로 감독한다.

레비스트라우스사의 사례

레비스트라우스사는 계약업체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기업 윤리강령을 채택한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주 알려진 회사이다. 이 모범적인 기업윤리강령의 제정과 적용은 1992년 싸이판의 한 공장의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윤리강령이 회사내에서 엄격하게 준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계약업체들의 준수여부도 정

기적으로 감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감시활동의 결과 계약업체에서 윤리강령을 명백히 침해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와 코스타리카의 자회사에 대한 보고서는 공장에서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하루에 16시간씩 계속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납품업체에서 여러차례 노사분규가 발생했었다. 그 나라의 노동단체 활동가들에 의하면, 윤리강령을 지키면서 모회사의 계약상의 주문을 완전히 이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업윤리강령의 이행을 권장하자

기업윤리강령의 채택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인다. 윤리강령은 기업이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책임지겠다는 태도의 표시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외부에서 별도의 활동이 필요하다. 즉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있어야 한다. 보통 하나의 대기업이 갖는 복잡한 하청계약 관계때문에 이러한 감시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노동조합과 민간단체들, 소비자 단체들이 국제적인 연대체계를 갖추면 이러한 감시활동을 성사시키는데 한몫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체계에서는 여론화 캠페인이나 상품불매운동 등과 같은 적절한 행동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중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무역협정에서의 사회조항은 특정 국가 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정 무역 네트워크 (Fair trade networks)

(공정무역이란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무역을 의미한다 - 역자)

소비자들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계될 때 소비자의 힘과 노동자의 권익이 서로 만날 수 있다. 현재 공정무역 캠페인은 북쪽 국가들에서 많은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면서 직접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음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있다.

1. 소규모 생산자들이 만든 상품의 직접 판매

수년동안 옥스팜(OXFAM)과 같은 북쪽의 민간단체들은 남쪽의 민간개발계획이나 협동조합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원칙은 공정하게 생산된 제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년동안 이 운동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끔 되었

다. 이 국제적 무역네트워크는 국제대안무역연맹(IFAT)에서 조정한다. 대안 무역의 규모는 현재 연 5천만불(4백억원)을 넘는다.

2. 특정상품의 공정무역을 위한 캠페인

북쪽의 민간단체들은 역시 다국적기업이 남쪽 나라에서 생산하는 특정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무역캠페인을 벌인다. 여기에는 커피, 차, 바나나, 소고기, 꽃과 같은 농산물과 카펫,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의 공산품에 관련된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에는 남쪽의 노동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된다. 이런 캠페인이 갖는 공통 목적은 소비자의 힘을 사용하여 기업이 하청계열사에게서 공정한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인 제재조치가 다 동원된다. 최근에는 특허상표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허상표 제도

특허상표 즉 트레이드마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제품이 공정하게 생산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보통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에 관련된 상표가 있다. 영국에 있는 공정무역재단은 공정무역조건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이 이 지침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현재 유럽연합차원에서도 공정무역에 관한 공통 기준과 감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공정무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성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공정무역 캠페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접무역에 관련있는 많은 소규모 생산자들은 여성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들이다. 전자업체에 여성이 많이 고용되는 것은 주류 경제권으로부터 여성이 주변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더 절박하게 새로운 생존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직접무역을 하면 여성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대규모 무역업자의 자비를 기다리게 하는 대신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줄 수 있다.

또한 의류, 신발, 장난감과 같은 국제 공정무역캠페인의 목표가 되는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최근 북쪽에서는 남쪽 나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파는 소매상들도 남쪽 생산자들의 노동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소비자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데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갖고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가를 규정하려 할 때, 여성이 우선시하는 것과 남성이 우선시하는 것은 아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윤리강령의 내용이나 공정무역 현장의 내용을 정할 때

여성노동자들과 협의를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로 어떤 국제연대운동의 전략을 세울 때 그 과정에 여성의 대표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행동과의 연결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설정하거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그 어떤 국제적인 노력도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국제 전략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을 강화시킬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현장과 지역차원에서의 행동은 투쟁의 핵심이며, 더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다. 남성노동자의 요구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도 반영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5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무역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힘든, 거리가 먼 영역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과 이슈에 대한 열린 토론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여성들은 무역정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무역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베이징 회의(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후속활동계획에 따라 새로운 실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사회발전과 관련된 국제 토론회에서는 이미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폐쇄적인 구조인 무역협정분야에는 이러한 실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여성들이 나서서 변화시켜야 하며, 그리하여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권력의 중심들

세계무역기구(WTO) -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세계무역기구는 상설 조직이다. 각 나라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장관급회의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그들은 2년에 한번 회의를 갖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책들을 조정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사항은 일국 일표제에 기초한 합의제(만장일치제)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협상은 무역강국에 의해서 지배된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한 것은 이들 무역강국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었다. 약소국이나 빈국의 제안은 최소한의 것만이 다루어졌다. WTO 회의진행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때문에 대중이 이 기구의 진행을 감시하고 그 책임성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

WTO와 노동 기준

WTO와 같은 조직이 노동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집행 책임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다. 그 이유는:

- WTO는 무역자유화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 대중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가지 전략이 제안된 바 있다.

1. 다른 국제기구 즉 국제노동기구 혹은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 같은 곳에서 노동기준 규정의 집행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의 제안과 같이 노동기준을 설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ILO에 일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현재 WTO는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가할 힘이 있는 유일한 기구로 간주된다. ILO와 UNCTAD는 정치적 힘이 약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들 기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려면 조직과 정치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WTO를 더 개방적이고, 책임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WTO의 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표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WTO 회의구조가 더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 또 외부의 민간단체들이 대표를 보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그 어

떤 장치도 없다.

WTO에 대응하자

여성노동자와 여성단체들은 WTO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보다 많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 여성단체들은 국제자유노련(ICFTU)의 제안에 대해 토론하여 입장을 정한 다음 그 제안의 실현을 위한 압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정책결정 기관에 여성단체들이 대표를 파견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안을 낼 수도 있다.

- 다른 구체적인 제안을 더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차별구조로 말미암아 새 무역협정이 남녀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제안.

- WTO의 임직원의 엄청난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 (이전 GATT 경영진은 100% 남성이었다 : 유엔 인간개발보고서)

나라별 무역정책

각 나라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무역문제는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경우가 드물다. 무역문제는 보통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국익"의 문제로 간주된다.

특정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는 거의 없다. 각국 정부는 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갖는다. 대기업과 정부의 비공개 협의가 진행되는 일은 흔히 있다. 한편 일부 선진국에는 무역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조차 노동자나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다.

- 사회단체들은 무역정책에 대한 보다 개방된 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인도와 다른 몇몇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토론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베이징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각국 정부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새 무역정책의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책임지도록 활동할 수 있다.

지역 무역정책

지역 무역협정에 관해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유럽연합의 경우에 민주적인 대표성과 결정사항의 책임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유럽의회에서 제기된다. 다른 지역협정은 이러한 민주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민간단체들이 나섰던 것이다. 지역기구란 일반적으로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보는 사

람들도 있다. 이들은 직접 참여·직접 대표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프타조약의 분쟁심사기구에 노동기준관련 분쟁을 직접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표성의 기회가 있는 경우에 여성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구체적 요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단체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에게도 여성의 권리에 대해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많은 단체들이 여성노동자들을 위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여성 당사자들과 협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는 새 무역협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ILO 조약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며, 그 이행여부가 감시된다. 국제노동기구는 정부, 고용주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3자 기구이다. 이 3자 대표 구조는 노동자의 이익이 종종 절충되어 타협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WTO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국제노동기구는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에는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지 않다. 최저노동기준에 대한 ILO의 권고내용을 보면, 여성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들어있지 않다. 국제노동기구 회의에 여성 대표율이 낮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거 20년 동안 여성의 대표성은 14%에 그쳤다. 정부의 여성 대표비율(16.9%)이 노동조합의 여성 대표비율(12.5%) 보다 더 높은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79명의 관리직 중에서 9명만이 여성이다.

- 현재 국제노동기구가 보다 균등한 성 대표성을 갖도록 로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성평등화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이 완전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 노조운동

국제자유노련(ICFTU)은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주요 노동조합연맹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해 강하고 일치된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방대한 조직체계가 갖는 관료

성 때문에 이 단체는 기층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 힘들다. 국제자유노련의 직책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관심사는 북쪽 나라들 중심이다.

남쪽 나라에는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직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의 자주노조 또는 민주노조들이 그렇다.

국제 노조 조직에 여성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각국의 노조 임원직에 여성이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 많은 여성들이 단체 행동이 어려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노조는 보통 정규직 남성 노동자를 대표한다. 해외수출과 관련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노조결성이 금지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여성 조합원 비율이 높은 노조에서도 상층 임원은 남성들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 노동조합 직제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은 그 나라 노사분규에만 참여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조항 문제와 같이 광범위한 토론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은 자신의 이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별도의 토론구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민간단체

민간단체, 원조단체, 인권단체들은 보다 나은 노동기준을 지지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여성의 참여를 권장해왔다. 이들 단체들은 성평등을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정책토론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에 관해 민간단체에서 정책토론할 때 여성이 주변화되지 않고 또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내/국제연대로 대처하자

세계 도처에서 여성은 그 나라에서의 조직화와 단체행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여성들은 국제적인 연계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도 경험해왔다. 이는 여성들이 무역전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

여성의 관점 개발

여성들이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려면 우선 여성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역자유화가 여

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별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여성이 요구하는 바는 남성과 다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조항과 같은 전략의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서 스스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토론 주제 예시

•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사회조항이 무의미하다는 뜻인가? 사회조항은 비공식부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 여성은 가족부양 책임과 관련된 권리를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기를 원하는가? 노동기본권에 포함시킬 성과 관련된 또 다른 권리가 있는가?

정보의 공유

여성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국제무역과 같은 문제의 토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학자와 정책결정자들 뿐이다. 그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이제 여성들은 정보접근권 즉 알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값싸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연구활동의 활성화

이제껏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에 관한 관점이 부재하였다. 무역자

유화가 각 지역의 여성노동자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무역자유화가 가족과 공동체, 작업장에서의 성차별에 어떤 여파를 가져오는지는 알려진 바가 더 적다. 여성들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의 후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제의 논쟁에 참여할 필요

이와 아울러 여성들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쟁들은 WTO, ILO, 유럽의회, 각국의 노동조합, 국제노동조합, 학술토론회나 민간단체 등과 같은 기관내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토론에서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제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사항이 채택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로비활동(정책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전반적인 활동)

위와 같은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여성단체들은 자기 입장이 적절한 기관에 전달되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그 전략은 현장, 그 나라, 지역(아태지역과 같은), 혹은 국제적인 차원의 전략이 되도록 한다. 만약에 지역적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제기하기로 한다면,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있는 여성단체들과 연계

해서 활동을 전개하면 좋다. 유럽연합(EU), 북미주 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무역기구(WTO) 등과 관련하여 로비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단체들과 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규범의 이행과정 감독활동

현장의 여성단체와 여성 노동조합원들은 사회조항 혹은 기업윤리강령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감시기관은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노동조합도 여성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다. 무역협정의 노동기준 보장사항이 위반되었을 때 여성단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감시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캠페인의 개발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합의된 노동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폭로캠페인에 이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노동기준 침해가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또 이러한 폭로 캠페인이 반정부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노동기준 보장이 안되는 이유는 새로운 무역협정 혹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에 책임이 기업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모기업 본국)이

있는 나라의 민간단체들과 연대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확한 정보 공급원과 북쪽 나라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결합시키는 것은 기업의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안의 무역네트워크 개발

여성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시키는 일을 추진하면 공정 무역이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직접 무역을 지원하는 단체들로부터 언제나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무역을 개발하는 일이 여성의 특수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정한 무역은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여성의 권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일하는 여성의 권익실현과 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와 노동자가족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위해 1987년 3월 서울지역에 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 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들은 여성노동자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통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를 1992년 7월에 결성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

- 일하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 조직사업
 - 교육사업
- 홍보사업, 『일하는 여성』 발간
 - "평등의 전화" 상담사업
- 국내외 여성, 노동단체와의 연대사업
- 어린이집 운영 등 아동보육관련 사업

여성노동자회 연락처는 ...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96-43호 전화 : (02)869-1347

- | | |
|---|---|
| <p>♡ 서울여성노동자회 : (02)867-0516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p> <p>☎ 평등의 전화 (02)853-8354</p> <p>☎ 튼튼이어린이집 (02)837-3073</p> | <p>♡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0551)95-5355 — 마산시 회원구 양덕2동 151-30 3층</p> <p>☎ 평등의 전화 (0551)95-5355</p> <p>☎ 튼튼이어린이집 (0551)93-0820</p> |
| <p>♡ 인천여성노동자회 : (032)862-2832 —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p> <p>☎ 평등의 전화 (032)863-2659</p> <p>☎ 나눔어린이집 (032)863-7443</p> | <p>♡ 광주여성노동자회 : (062)522-3029 — 광주시 북구 운암동 423-25 2층</p> <p>☎ 평등의 전화: (062)525-2896</p> <p>☎ 튼튼이어린이집: (062)511-8647</p> |
| <p>♡ 부산여성회 직장사업위원회 : (051)807-6540 — 부산시 진구 부전1동 347-3 한남빌딩 301호</p> <p>☎ 평등의 전화: (051)807-7265</p> | |

다음 자료는 최근 여성노동자회에서 발간한 자료들입니다.
필요한 분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
|--|
| 교 재 |
| 「올바른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 — 교육선전지침서」 1992 「성의 평등, 부모의 권리, 그리고 육아를 위한 투쟁」 1992 —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 육아휴가제 확보사례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 1992 「일본 부인노동의 실정」 (번역서) 1993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조직가 훈련」 1993 「일본 모성보호운동사」 1994 「When the Hen Crows ... — Korean Women Workers Educational Programs」 1992 |
| 책 |
| 「여성노동자와 임금」 1990 「일하며 키우며 - 일본 보육운동 사례-」 1992 |
| 연구보고서 |
|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확대방안」 1994 「산업구조조정과 여성고용」 1994 (한글, 영문) 「한국의 자동화가 여성노동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5 (한글, 영문) |
| 자 료 집 |
|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991 '올바른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 — 직장탁아소의 필요성 및 설치방안 토론회 자료집 1991 '부인조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2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992 (한글, 영문) '여성노동의 현실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1993 '직장탁아소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회' 자료집 1993 '탁아운동의 방향과 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3 '한-일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운동 교류보고서' 1994 '가내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 아시아지역 가내노동자 연대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회 자료집 1995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996 '아시아 비정규직노동자와 생산협동조합 교류프로그램 보고대회' 자료집 1996 |
| 잡 지 |
| 「일하는 여성」 (격월간 발행) 「Working Women」 — 일하는 여성 영문본 (년4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s United

서울·구로구 구로본동 496-43호, 1층 Tel : 869-1347/Fax : 837-1407/천리안 ID : KWVA/나우누리 : TSKWWAU
1/F 496-43, Kuro bon-Dong, Kuro-Ku, Seoul #152-059, KOREA

한여노협 96-50호

1996. 8. 6

수신 : 각 언론사 여성담당 기자님 귀하

제목 : [세계무역과 여성] 자료집 발간에 관한 보도 의뢰의 건

민주언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회에서는 [세계무역과 여성 - 변화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여성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지난 96년 4월, 세계경제와 무역정책의 결정과 논의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제외되어 왔고, 이제 여성들 스스로가 세계무역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현실을 분석하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계무역은 여성의 이슈다"(World Trade Is A Women's Issue)라는 제목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회에서는 지난 4월의 국제회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 회의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세계무역정책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기구들이 한국경제, 무역관계, 신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서와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으나, 이 연구서들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자료집은 국제무역정책이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향후 무역정책 결정과 이에 대한 운동의 대응들이 보다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부디 본 자료집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셔서, 널리 보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철순 대표 또는 왕인순 사무국장에게 연락주시시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십시오.

첨부자료 1. [세계무역과 여성] 자료집 1부

사 단 법 인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협 의 회

대 표 이 철

